



세속적인 것은 행복한 것이 아님

디 브렌트 클레멘트
서울 선교부장

대부분의 인간은 물질적인 성공에 너무 집착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안락한 생활과 사회적 위신과 권력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평범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풍요한 인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가장 훌륭한 인간도 쉽게 판매했을 수 있는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17절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물질적인 성공을 이룰 것인가 하는 생각이 항상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 관심 중에는 타당한 것도 있으나, 흔히 극단적인 것이 되기가 쉽습니다. 교육은 우리가 추구하는 직업에 관건이 되므로, 특히 신경을 쓰게 됩니다. 우리는 동료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는 직업을 갖는 문제와 같은 사회적 지위에 대하여 골몰합니다.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부를 얻기 위한 준비를 하도록

성화같이 독촉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음식을 사서 그들에게 먹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건강하게 양육되며 세상에서 뛰어나도록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가족의 물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지만, 젊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세속적인 것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수가 많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부와 개인적인 권력을 추구하며 인정을 받고자 합니다.

하늘 왕국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입니까? 구세주께서는 마태복음 18장 3-4절에서 분명히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생활 필수품을 갖추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자신과 가족이 그러한 것들을 구입하기 위해 합당하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물질주의로 인해 영성이 파괴되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모든 인간에게는 아버지라는 직분이 주어졌으며, 아버지는 생활 필수품을 마련할 뿐 아니라, 지상 생활과 영생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라고 해롤드 비 리 대관장

은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신체를 단련시키면서도 영적 근육은 시들어 죽어가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던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마련해 주면서도 영적인 발전은 저절로 이루어지도록 방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실로 많은 예언자들은 옛부터 많은 인간이 영적인 영양 실조로 고통받고 있음을 지적해 왔습니다. 우리의 시야에서 장막이 거두어진다면 영체의 근육이 약화되어 축 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영체가 단지 주일학교 교사나 성찬식의 연사들에게서 나오는 음식만을 섭취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시정하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의로움에 관한 일을 행하지 않고 이와 같은 허약한 영체는 죽게 됩니다. 일요일에 교회에 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구하고, 기도하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체계를 세워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또 시온 또는 조직된 시온의 스테이크 안에 자녀를 가진 양친이 있으면 그 자녀의 나이 여덟이 되었을 때 회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얻는 신앙과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 등의 교리를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죄는 부모의 머리에 머물러 있느니라”(교성 68: 25)

우리는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들”(교성 68: 28) 가르쳐야 합니다.

작년, 한국으로 오기 전에, 우리는 워싱턴 주 셀라에서 넓은 대지에 지은 안락한 집에 살았습니다. 셀라는 토지가 비옥한 곳으로, 복숭아, 살구, 사과, 배, 버찌 등을 재배하는 과수원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처음 그 집을 산 뒤에, 유실수를 심기로 걱정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땅을

사서 유실수를 심는다면 과일을 재배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과일을 사먹지 않아도 되며 충분히 자급 자족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사과나무, 버찌나무, 복숭아나무, 살구나무를 각각 2그루씩 8그루를 샀습니다. 나는 그 나무를 심고 물을 주곤 하다가 그 뒤에는 그냥 자라도록 보살피지 않았습니니다.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 분주했으므로 아이들에게 나무를 돌보게 했습니다. 그들은 가끔 물을 주었으나, 주지 않는 때가 더 많았습니다. 가끔 살충제를 뿌려 주기도 했지만, 대개는 너무 늦게 뿌려 주어 결과가 실통치 않았습니니다.

2년 후에 나는 내가 심어서 만든 조그만 과수원과 나와 거의 같은 시기에 심은 이웃집 과일나무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웃집 나무도 무성하고 많은 수확이 예상되었습니다. 내가 심은 나무는 발육이 잘 안 되어 앙상하게 가지가 뒤틀리고 보잘것 없었습니다. 전혀 과일이 달릴 것 같지 않았습니니다.

요점은 우리가 노력한 대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경전에는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을 체쳐 놓고 물질에만 마음을 쓰면, 우리는 물질을 중요시하는 인간이 되고, 우리 가족도 그와 같이 됩니다.

엘마서 32장에는 신앙을 키우는 방법에 대한 엘마의 유명한 설교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을 영적으로 어떻게 키우느냐 하는 문제에도 적용할 수 있는 영원한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마는 씨앗을 심어 그것을 보살피려 무가 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7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며, 너희가 힘써 이 나무를 가꾸어 뿌리를 뽕게 하고, 크게 자라 우리를 위해 열매를 맺게 하자

하리니, 보라 너희가 열심히 이 나무를 가꾸면 뿌리를 뺀고 크게 자라 열매를 맺으려니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영적인 음식을 매일 우리 자신과 가족이 섭취하는 것과 비교해 봅시다.

38절에서 그의 말은 계속됩니다. “나무를 소홀히 생각하여 잘 가꾸지 아니하면, 보라, 나무는 뿌리를 뺀지 못하여 햇빛이 비쳐 마름에 뿌리가 없는 이 나무는 시들어 버릴 것이요, 너희도 이를 뽑아 던질 것이라”

어느 경전에서든 우리가 스스로 영적인 음식을 섭취하는 일을 소홀히 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이보다 더 적합하게 묘사한 구절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고향에 두고 온 돌보지 않은 나무와 같이 될 것입니다. 유혹이 오면(따가운 햇빛이 내려 쬐이면) 영적인 저항력이 너무 약해져 있으므로 이겨 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에 굴복하며 대개의 경우 범법하여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이 영양 실조에 걸리게 되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시련을 이겨 낼 수 없습니다.

엘마서 39절에서 41절까지 이렇게 계속됩니다. “이는 씨앗이 나쁘거나 열매가 탐스럽지 못함이 아니요, 너희의 토지가 메마르고 너희가 나무를 가꾸지 아니한 때문이라. 그 나무의 열매를 얻지 못하느니라”

“이와 같이 신앙의 눈으로 결실의 날을 바라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하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결코 생명 나무의 열매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

“너희가 말씀을 잘 간직하면 이는 너희가 나무를 가꿈과 같아서 나무의 열매를 바라는 너희의 신앙과 부지런함으로 자라기 시작하여 뿌리를 퍼리니, 영생으로 뻗

어 오르는 나무가 되리라”

얼마나 힘있는 메시지입니까. 여러분은 선천적으로 선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선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하고 그가 가지신 모든 것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교리와 성약 84편 38-39절에는 “나의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저에게 주어지리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순종하고, 자기의 나무를 키우며, 영의 음식으로 영을 살찌울 때에 해당되는 약속입니다.

이제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구세주의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 대부분의 자녀들은 가정에서나 가정을 떠난 뒤에 충분한 영적인 음식물을 섭취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것은 씨앗이 나뻳기 때문이 아니라, 올바르게 영양을 섭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종들이 거듭 말씀한 것을 마음속에 다시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몇 분 동안이라도, 여러분의 자녀를 곁에 모아 놓고 예언자의 말을 한두 구절을 읽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가르치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 주십시오. 계명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은 그 중요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되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조금씩 행해 나갈 때, 그것은 결국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우리는 우선 순위를 정해 시간을 선용해야 합니다. 영적인 축복은 육신의 안락보다 더욱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서 함께 생활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겸손히 기원합니다. 아멘 *

서울 동 스테이크 대회



1980년 전반기 서울 동 스테이크 대회
가 지난 4월 26일, 27일 제1와드에서 열
렸다. 이번 대회는 총관리 역원인 제이콥
디오거 장로가 감리하였으며, 800여 명의
회원과 구도자가 참석하였다. 디오거 장로
는 신권 지도자 모임과 일반 총회에서 자
녀 교육의 중요성과 교회나 가정에서의 자
매들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였다. 고 원
용 스테이크 부장은 춘천 지부장단의 개
편을 발표하였는데, 새로운 춘천 지부장
으로 청주 지부장을 지낸 조 문환 형제가
부름 받았고 그의 보좌로 김 정곤 형제와
임 동권 형제가 부름 받았다. *

도봉 지부
와드로 승격

서울 동 스테이크 도봉 지부는 지난 5
월 10일 지부 대회에서 와드로 승격되었
다. 1978년 5와드에서 분리된 후 2년만
에 와드로 되었다. 도봉 와드 감독으로 구
본동 형제가 부름을 받았고 그의 보좌로
김 영근 형제와 임 종기 형제가 성별되었
다. *



전열 좌: 김 경석 형제(김행서기) 전열 중: 구 본동 감독
전열 우: 김 영근 형제(제1보좌) 2열 좌: 손 현준 형제(서기)
2열 우: 임 종기 형제(제2보좌)

하 근수 서울 선교부장
환송 노변의 모임

1980년 6월 22일 일요일 오후 6시 30
분부터 서울 동 스테이크 제1와드에서 서
울 스테이크와 서울 동 스테이크 합동 노
변의 모임을 가졌다. 각 스테이크 부장단
과 서울 선교부장단 그리고 많은 회원들
이 참석하였다. 고 원용 스테이크 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모임에서 최 옥환 스
테이크 부장과 하 근수 자매 그리고 하 근
수 서울 선교부장의 말씀이 있었다. 하 근
수 선교부장은 "복음의 첫째되는 원리는
막연한 신앙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
를 믿는 신앙"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였고
믿음과 신앙의 차이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하 근수 선교부장은 6.25 동란 직후 한국
에서 선교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
국하였다가 1977년 서울 선교부장의 부름
을 받고 다시 온 분이다. 그는 또한 한국
에서 플브라이트 장학생으로 한국에서 수
학한 적도 있다. 제4대 브라운 선교부장
과 제5대 털 선교부장의 뒤를 이어 한국
선교부의 귀환 선교사로서 제6대 선교부
장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하 근수
선교부장의 재임시에 복음 선교사들의 헌
신적인 선교 사업으로 기적적으로 많은 구
도자가 개종했다. *

오동도에
수목 표찰 붙임

여수 지부는 지난 3월 23일 독신 성인
회원들의 수고로 여수 오동도에 수목 표
찰을 붙였다. 이번 행사를 위하여 10여일
동안 준비 작업을 하였으며 나무 이름과
교회 이름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제 오동도의 나무에는 수목 표찰이 붙
게 되었고 오동도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나무 이름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되었다. *

오스트리아에 최초의 스테이크 탄생

지난 4월 20일, 115년 전에 교회가 이 나라에 소개된 이래로 처음으로 비엔나 오스트리아 스테이크가 비엔나 선교부로부터 분리, 조직되었다.

십이사도 평의회의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은 5개의 와드와 7개의 지부의 2,014명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이 스테이크 탄생을 위한 모임을 가졌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이며 교회의 유럽 지구 집행 관리자인 디오도어 엠 버튼 장로가 이 모임에 참석하여 스테이크 탄생을 도왔다.

이 선교부에서 비엔나 지방부장을 지냈던 요한 에이 본드라 형제가 스테이크 부장으로 지지받았으며, 레오폴드 엠 소우섹과 에른스트 후스 형제가 각각 보좌로 지지받았다. 십이사도 평의회의 올슨 포켓 장로와 스위스-이태리-독일 선교부의 윌리엄 더블류 리더 선교부장이 이 땅을 선교 지역으로 헌납한 1865년 4월에 비로소 이 나라에 선교 사업이 시작되었다.

오스트리아인으로서 처음 개종한 사람은 요셉 에이 오하임인데 그는 1870년 1월 22일에 뮌헨에서 당시 선교부장이던 칼 지 매저로부터 침례받았다. 1883년에 맨 처음으로 공식적인 선교사로 이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폴 이 해머 장로와 토마스 비신저 장로였다. 그들은 어느정도 성공을 거두기는 했으나 박해 때문에 2년을 넘기지 못하고 그 나라를 떠나야 했다.

1901년에 하감 하우스트 룩트에 7명의 회원으로 오스트리아에 최초의 지부가 탄생했다. 비엔나의 최초의 지부는 1909년에 조직되었다. 20세기 초에는 선교 사업이 다소 번창했지만 제 1차 세계 대전과 제 2차 세계 대전이 발발했기 때문에 두

번이나 선교 사업이 중단되었다. 1946년에 벤슨 회장이 스위스-오스트리아 선교부의 오스트리아 지방부를 다시 조직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1958년에 공식적으로 교회를 승인하였다.

교회 역사상 최대로 많은 말일성도가 모인 지역 대회

지난 5월 17~18일 양일간에 열린 패서디나 로우즈 보울에서 열린 로스앤젤리스 지역 대회에는 현대의 교회 역사상 최대로 많은 회원이 참석한 기록적인 대회였다. 2일간의 대회에서 가장 많은 숫자가 참석한 집회는 일요일 오전 집회로 75,000명이 참석했다.

현재 전세계 82개국에 회원을 갖고 있는 이 교회의 가속적인 성장을 나타내듯이 주말 모임에는 4,200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을 위해 7개국어로 동시 통역을 해야 했다. 그 지역내에 있는 14개의 스페인인인 와드와 지부에서 온 약 2,800명의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회원들이 통역이 필요한 가장 많은 숫자의 사람들로 나타났다. 주로 최근에 멕시코에서 이주해 온 사람으로 구성되는 회원 수는 지난 5년 동안에 거의 5,000명이 늘어났다.

2일간의 대회를 통하여 스페인어, 사모아어, 한국어, 통가어, 북경어, 광둥어를 사용하는 회원들을 위하여 90명의 통역사가 필요했다. 그들은 모두 그들의 모국어를 사용하는 와드와 지부에서 모임을 갖고 있다. 수개 국어로 동시 통역되었으므로 그곳에 모인 회중은 트랜지스터 라디오와 이어폰을 사용하여 모국어로 통역되는 말씀을 들었다. 또한 약 1,000명의 아메리카 인디언과 450명의 농아 회원들도 참석했다.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통계 자료

1980년 3월 현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물론교)

교회 본부 :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1830년 4월 6일, 뉴욕주 세네카군 페이 에트에 있는 피터 휘트머의 오두막집에서 조직됨.

1830년과 1847년 사이에 뉴욕주에 처음 자리잡은 교회는 오하이오주와 미주우리주, 그리고 일리노이주로 본거지를 옮겼다가, 마지막으로 초기의 물몬 개척자들이 정착한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자리잡았다.

요셉 스미스-교회의 첫 예언자요 대관장이었으며, 1844년, 일리노이주 카테이지에서 순교당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현재 교회의 제12대 대관장이다.

물몬 교도는 81개국과 16개국 지역에 산재해 있다.

연도와 회원 수 : 1830년-100명, 1880년-160,000명, 1930년-672,000명, 1980년-4,600,000명(계획)

현재 전세계의 집회소 수 : 약 12,000.
현재 스테이크의 수(주교 관구에 비하여) : 약 1,100.

현재 선교부의 수 : 185.
현재 복음 선교사의 수 약 30,000명.

교회 교육 기구에 등록된 학생 수 : (대학, 초급 대학, 고등학교, 신학 연구원 중등부와 대학부) : 약 380,000명.

개인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가족과 개인을 강화시키고 돕기 위해 마련된 조직

은 다음과 같다.

1. 신권 정원회. 교회에 전문적인 목사가 없으므로 12세 이상의 합당한 자격을 갖 갖춘 모든 형제 회원들은 신권의 여러 직분에서 필요한 의식과 성찬을 집행하는 책임을 나누어지게 된다. 신권 정원회는 또한 영적인 가르침과 지침을 제시하여, 회원들의 물질적, 사회적 및 정서적 욕구를 보살펴 준다.
2. 상호부조회. 미국(1842)에서 가장 오래 된 여성 조직으로, 현재 회원수가 전세계적으로 150만 명에 달하는 가장 큰 조직에 속한다. 교회의 성인 여성들은 교양과 가사, 예술 및 신학에 대한 정기적인 가르침을 받으며, 이웃에 사는 회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자선 봉사를 한다.
3. 청년. 12세 내지 18세에 이르는 여성 회원들을 위한 조직이다. 이 조직은 한창 중요한 연령기에 있는 소녀들에게 영적인 가르침과 지침을 제시해 주기 위해 조직되었다. 등록자 수 : 298,000
4. 초등협회. 3세 내지 11세에 이르는 어린이들을 위한 조직으로, 가족을 도와 어린이들에게 영적인 가르침과 지침을 준다. 등록자 수 : 588,000명.
5. 주일학교. 12세 이상의 교회의 모든 회원을 위한 조직으로, 교회 역사와 교리에 관한 가르침을 제공한다.
6. 활동 위원회 : 모든 집회소와 회원들에게 교양, 사교 및 오락 활동의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한 이러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